

영남대학교박물관 특별전

채운지남(彩雲之南), 대리 백족을 만나다

전시기간 : 2016. 10. 6 (목) - 11. 30 (수)

전시장소 : 영남대학교박물관 2층 특별전시실

개막식 : 2016. 10. 6 (목) 오후 4시

초대의 글

지난 2010년 중국 운남대학 인류학박물관과의 교류 기념특별전 〈채운지남(彩雲之南), 석림 이족을 만나다〉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전시를 시점으로 우리 박물관은 향후 지속적으로 운남 소수민족 관련 전시회를 개최 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러저러한 사연으로 후속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박물관은 운남대학 인류학박물관과 소통과 교류를 이어 왔습니다. 특히 2012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친 운남 백족의 생활용품과 현지 자료수집은 운남대학 인류학박물관 측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채운지남(彩雲之南), 대리 백족을 만나다〉전은 운남대학 인류학박물관과 상호협력 및 교류를 통해 이루어낸 두 번째 연구성과입니다. 채운지남은 다양한 소수민족이 모여 아름다운 빛깔을 내는 채운(彩雲)과 같이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는 중국 운남(雲南)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운남은 그야말로 살아 있는 야외 민족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가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있는 여러 소수민족의 문화와 민속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6년 10월 6일

영남대학교 박물관장 이 수 환

영남대학교 총 장 노 석 균

